

빈 공간을 채우는, 퍼블리셔 신은빈입니다.



Web Publisher

한 우물을 파는중 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공부하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꿈이 막연하게 회사원 그 뿐 이였습니다. 그러다 내가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게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 무언갈 보고 생각하고 상상한것을 그리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그렇지만 좋아하는 그림그리기를 하면서도 막상 힘들고 부담되지만 포기하지않고 끝까지 달려 첫 달리기는 성공적으로 끝나 대학에 진학을 하고서 대학에서 프로그램 툴을 공부하던 도 중 프로그래밍을 배우며

“웹 퍼블리셔/프론트 엔드” 라는 목표를 찾았습니다.

Profile

Name

신은빈

Day of Births

1996.04.19

Address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말이 통하는 개발자

기획,디자인도 배우며 공부하고 졸업하는 날까지 팀 프로젝트를 하며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목표를 향해 우리는 대화하며 맞춰가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업에서 일을 할 때 대화의 **중간역할**을 하고, **완만한 관계 형성**과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 나가갈 수 있습니다.

계속 성장합니다.

남들과 다른 경험이라고 하면 모바일매거진 프로젝트(Page/n)를 했습니다.

작가들의 이야기를 한 곳에 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작가분들은 프로그래밍과 같이 작업하는게 처음이라 인터뷰나 자료들의 통일성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정리가 안되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매거진 오픈 전날 밤까지 수정을 하며 작은 사회경험을 힘들게 했지만 완성을 시키고 매거진

결과물을 보며 많은 만족감을 얻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에 중요성을 한번 더 생각한 계기가 되어서 더욱 성장하였고

더 나아가 웹 개발 포지션을 맡은 이상 끝까지 책임을 지고 완성 해야 하는 걸 많이 느끼고 팀 프로젝트를 하나씩 진행 할 때마다 더욱

성장하는 웹 개발자 신은빈 입니다.

Contact

Number

010-6481-5911

E-Mail

qlsdmstls@naver.com